

봉은사와 추사의 인연, 대중에 공개

봉은사 24일 세미나·불교중앙박물관 25일부터 특별전

조선 후기 유교와 불교의 교류에 크게 기여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불교와의 인연을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개산 1220주년을 맞아 24일 개산대제에 이어 '봉은사와 추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어, 25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를 개최한다.

추사 김정희는 화엄사를 원찰로 하는 불교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불교경전을 접할 수 있었다. 추사는 33세에 해박한 불교 지식을 총망무진 구사한 '해인사종건상량문'을 비롯 해동대화상진영찬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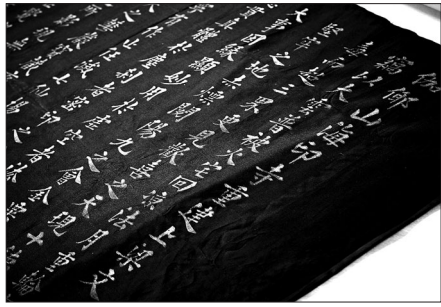
추사가 불교와 유교의 소통에 앞장 섰

은 서문살 무렵 초의선사를 만나며 부터다. 만년에는 합경도 북경으로 유배를 다녀온 그는 해배 후 경기 과천에 과지초당(瓜地草堂)을 짓고는 은거하면서 이곳에서 가까운 사찰인 봉은사를 왕래하다가 나중에는 이곳에 방을 두고 기거하기도 했다. 이 무렵 봉은사에서는 남호(南湖) 영기(永奇)와 운구 한민, 당시 봉은사 주지 호봉 응규를 중심으로 화엄경을 판각하는 판전 불사가 성료되자 추사는 현판 글씨를 썼다.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다루지며, 특별전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을 비롯한 보물 3건, 지방문화재 5건을 포함한 77건 124점이 선보인다. 특히 대구 은해사 소장 편액 '佛光(불광)과 '大雄殿(대웅전)과 같이

사찰이 소장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추사의 작품도 전시된다.

추사와 인연이 깊은 봉은사는 추사의 작품 뿐만 아니라 소장품들인 고려시대 청동 은입사 향완(1344), 홍무 25년(1392)명 대웅전 동종, 대웅전 삼장보살도(1892)를 비롯해 이곳에서 치른 승과에 합격한 사명당



추사가 쓴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

대불사가 펼쳐지며 이날 오후 7시에는 가수 서문탁, 호란 등이 참여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이밖에도 개산 1220주년을 축하하는 국화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고, 시민들에게 전통차의 맛과 향을 선사하는 전통차 시연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에 마련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인사 중건 상량문 등 124점
각사찰 소장 유품 선별
개산기념 국화축제 등 열려

유정의 대구 동화사 진영(1796) 등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26일 오전 11시 봉은사에서는 봉은사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 화엄경판의 인경본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도는 정

불교음악 전통성 찾는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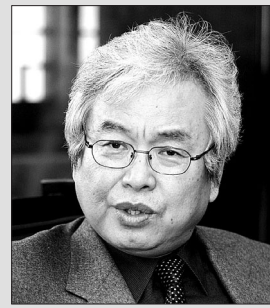
조계종 9월 25일, 불교음악 발전 토론회 개최

불교에서 음악은 법업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신심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에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찬불가가 제작됐지만 서양음악의 방식 차용 등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불교음악 발전 토론회'를 연다.

교음악의 발전적 전망(박상진) △2주제 한국불교음악에 있어서 의식곡 현황 및 발전적 개선방향 제언(정부기) △3주제 찬불과 회고와 발전 제언(박범훈)으로 진행된다.

전통·현대 아우르는 세가지 주제
박범훈·정부기·박상진 교수 발표
지휘자, 작곡가 등 토론자로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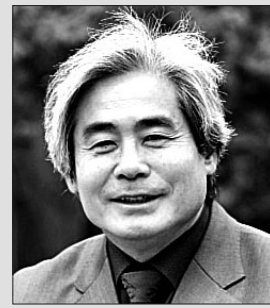
먼저 1주제를 맡은 박상진 교수는 '전통불교음악의 발전적 전망'에서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한국의 음악성이 글로벌화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전통불교음악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박범훈 교수



정부기 교수



박상진 교수

통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2주제에서 정부기 교수는 '한국불교음악 의식곡 현황과 발전'을 통해 불교음악의 역사를 짚고, 찬송가 유사곡 의식곡 배제, 전문제정위원회에서의 선정 및 홍보 등을 제안한다. 특히 정 교수는 한국정서에 맞는 화성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불교음악의 재편곡을 주장할 계획이다.

박범훈 교수는 '찬불가 회고와 발전 제언'에서 찬불가 창작에 있어 '범패'와 '화창'의 전통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함

을 강조한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찬불가가 불교음악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는 것이 그동안 '울'에 있어 전통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고 특히 일반 찬불가와 달리 의식 찬불가를 따로이 제정해야 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 중 1주제에는 김희경 오느름국악관련학단 단장, 남수연 법보신문 편집국 부장, 2주제에는 강양화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수석부회장, 황학현 작사가가, 3주제에는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덕신스님, 가수 김현성 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생사문화산업 발전 위한 연구소 설립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연구소, 9월 25일 창립

불교의 생명존중, 자살예방과 상장례문화 등 다양한 생사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문을 연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연구소(소장 신성현, 동국대 교수)는 9월 25일 동국대 문화관 학평세미나실에서 개소식 겸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사문화연구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웰다잉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불교계 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연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연구소는 정부 연구용역 등을 수주하며, 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책임교수로 학과 출신의 다양한 상장에 연구인력을 가동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철학 종교 심리학을 연구의 생사문화연구 △상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사산업연구 △교육과 콘텐츠를 연구하는 웰다잉 및 자살예방 연구의 세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개소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에는 학평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상장례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도 열린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양푸즈 장사 민정직업기술학원 교수의 '중국대륙의 장례 비즈니스 현황과 장례교육' 스이오우에 하루오 동양대 교수의 '일본의 현대 상장례 산업 현황과 과제' △이범수 동국대 교수의 '한국 상장례 산업 발전과 종사원 역할' △김석제 한국장례업협회 회장의 '한국 장례문화산업의 현황 전망' 등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정법사에서 '제8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시상식과 학술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상은 우수상에 고려대 철학과 이상민 박사, 학술상에 서울대 철학과 이해임 박사, 전남대 철학과 우동필 박사, 동국대 윤영호 강사에게 수상, 영예가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학술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동국대 前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을 좌장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의 사회로 학술회의가 이어진다. 이날 학술상 우수상 수상자 이상민 박사는 논문 '〈입능가경〉주석서에 나타난 지론사상의 한 측면'에 대해 발표하며,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이진오)는 제4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8월 제정된 상으로 논문상과 저역상의 두 분야를 선정한다. 논문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저역상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된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400만원이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학술연구자 지원서류 1부와 저서 1부를 부산 동아대 철학과로 보내면 된다.

심사결과는 10월 중 개별통지되며 불교계 언론에 공고된다. 문의 (011)4731-3471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불교와 언어' 학술대회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언어'를 주제로 제7차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에서의 언어를 철학, 수행, 문헌학, 서지학 등의 주제로 나눠 다각도로 고찰한다.

학술대회에는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불교에 있어서 언어의 철학·사유·비

판' △정진일 독일 괴팅겐학술원 박사의 '아함전적에의 문헌학적 접근' △김준호 부산대 교수의 '아가마를 중심으로 한 남전과 북전에 대한 대조 연구' △안재철 제주대 교수의 '법한대역각성 고찰'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각필과 현토의 시대별·지역별 전개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과학아카데미, 함양 약천사서 열어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매일 첫째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약천사 인기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불교과학아카데미를 실시한다. 불교과학아카데미에서는 '불교와 현대물리학', '불교와 인지과학'을 주제로 불교수행법의 의미를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불교과학아카데미

는 총 24회 회 독립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소립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로 20여년을 재직했다. 퇴직 후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 현재 동국대에서 '불교와 현대물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회, 2014 추계학술 논문 공모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권탄준)는 11월 7일 금강대 사이바강의실에서 열리는 2014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할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한국불교학회 정회원으로, 10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발표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발표자 선정은 10월 6일 학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예정이며 발표문은 10월 22일까지 이메일로 내야 한다.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한국불교학> 72집 게재 심사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041)731-3616

노덕현 기자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9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총회의원 보궐 선거 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중헌 중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궐 선거를 공고합니다.

아 래

교구별 총회의원 보궐 선거 배정

◆서울교구 1명 ◆부산교구 2명 ◆강원교구 2명

단, 교구 선관위에서 임후보자가 없을 시는 다른 교구에서 배정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총회법 제3장 6조 7조에 의거

교구 선관위 구성	2014년 9월 12일 ~ 10월 13일
교구 선관위 전형	2014년 10월 17일
중앙 선관위 심사	2014년 10월 20일
당선자 확정	2014년 10월 21일

대한불교 원효종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 춘명, 선운, 현수, 무공

총무원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